

우편배달 오토바이, 초소형 전기차로 바뀐다

집배원의 우편배달용 오토바이가 초소형 전기차로 교체된다. 올해 1천대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총 1만5천대의 오토바이 중 1만대가 초소형 전기차로 전환될 예정이다.



지난 25일 '지디넷코리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이날 서울중앙우체국 21층 국제회의장에서 '우편사업용 초소형 전기차 구매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차 도입 계획과 구매 규격안을 발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부품공급사, 충전기 업체 등 관련 업계와 전문가, 일반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올해 초소형 전기차 1천대 도입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우편배달용 이륜차 약 1만5천 대 중 66%인 1만 대를 초소형 전기차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초소형 전기차 도입은 국내 생산 시설에서 생산되는 차량을 중심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혀 초소형 전기차 업체는 한국 내 생산시설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격안에 따르면 우편배달용 초소형 전기차는 농어촌지역 운행 거리 80km 이상, 중소도시 60km 이상, 대도시 40km 이상, 적재 중량 100kg 초과, 적재 공간 0.4㎡ 이상, 완속 충전과 220V용 콘센트 충전 호환 방식 등을 충족해야 한다. 이외

에 블랙박스, 후방보행자 안전장치(영상장치, 접근·후진경고음 발생장치) 등 안전장치와 냉·난방장치, 원격잠금장치 등 편의장치를 필수로 갖춰야 한다. 공개된 규격은 올해 도입되는 1천대에 한해 적용된다.

그동안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의 이륜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 보호장구(특수 안전모 등) 지급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매년 300건 내외의 크고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눈·비·미세먼지는 물론 폭염에도 항상 노출됨에 따라 근로여건 개선이 요구돼 왔다.

강성주 본부장은 "올해부터 시작되는 초소형 전기차 도입 사업을 통해 집배원의 안전사고 발생을 대폭 줄이고 날씨 등으로부터 영향을 덜 받음으로써 직원들의 근로여건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 정부의 수요창출을 통해 초기 초소형 전기차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고, 친환경 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DMZ내 GP병력·장비 시범 철수 추진"

국방부가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병력과 장비를 시범적으로 철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4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자료를 통해 "판문점 선언의 DMZ 평화지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DMZ 내 GP 병력과 장비를 시범 철수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시범 철수는 개념 계획이며 남북한 군사회의 결과에 따라 단계별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시범 철수는 몇 개 초소부터 시작할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DMZ는 1953년 휴전협정을 체결할 때 군사분계선(MDL)을 중심으로 남북이 2km 구역에 설정한 군사 완충지대다. 당시 지대 크기는 992km였지만, 남과 북이 철책선을 전진 배치하면서 현재 570km로 43% 줄었다.

DMZ에는 남북 GP가 각각 60개, 160개 있다. GP에는 소대 단위 병력인 40여 명이 주둔해 총류탄과 기관총 등 중화기로 무장 후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GP에 주둔한 우리 측 병력은 2,4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매일 수색정찰을 들어가는 병력도 추가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DMZ 안에서는 권총과 같은 개인화기 외에 중화기를 반입해서는 안 된다. 이런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 남북정상회담에서 DMZ에 있는 중화기의 철수가 논의된 것이다.

GP 시범 철수 이후 역사유적, 생태조사 등과 연계해 전면적인 철수 방안도 추진된다.

앞으로 DMZ 평화지대화의 시범 조치로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비무장화와 정전협정 정신에 기반을 둔 경비인원 축소, 자유 왕래 등이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판문점 선언 'DMZ 평화지대화'의 시범적 조치로서 판문점 JSA 비무장화를 추진 중"이라며 "정전협정 정신에 기초해 경비인원 축소와 개인화기 및 중화기 조정, 자유 왕래 등을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한미 연합훈련 문제와 관련해 "향후 연합연습·훈련 조정은 북한 비핵화 진전, 각 부대의 전투준비태세를 고려해 한미 간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며 "내년 키리졸브(KR) 연습과 프리덤가디언(FG) 연습 조정은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34년을 오직 한 길

벨플라워/세리토스/다우니/플러튼/롱비치/놀릭

빅토리 바디샵

VICTORY BODY & SHOP

LIFETIME WARRANTY!

최대의 시설 / 만족한 서비스 / 저렴한 가격

- ✓ 보험 수리 전문
- ✓ 최신 프레임 머신에 의한
- ✓ 정확한 프레임 교정
- ✓ 노련한 바디맨의 완벽한 수리
- ✓ 최신 머신에 의한 Color Match
- ✓ Towing & Rent Car 알선
- ✓ FREE ESTIMATE



☎ (562)920-9745~6
17441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